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 사회 : 김병주(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발표 :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토론 :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

대학 ‘경제학 입문’ 교육의 문제와 과제

손정식(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I. 서론

II.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III.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IV. 경제교육 수요, 어떻게 늘릴 수 있나?

I. 서론

비록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60년대에 경제교육(economic education) 방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지만¹⁷⁾, 우리나라 경제학계가 본격적으로 경제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도 이후부터이다.

우리나라 일반대학에서 경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경제 교육 방법론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경제학회가 창립된 지 거의 60년에 이르고 그동안 수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경제교육’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논문은 1987년에 1편, 2007년에 1편, 모두 2편뿐이다.¹⁸⁾ 이외에 ‘강의기법’이나 ‘강의방법’ 등으로 검색되는 논문은 한 편도 없다. 이는 우리 경제학계가 학생들에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경제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학술적 차원에서 관심영역에서 비껴왔거나 연구논문으로 가치를 인정하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리고 ‘한국경제교육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일반 대학 경제학과 교수들이 숫자가 매우 제한적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7) 미국의 경제학회의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미 60년대에 시작했음을 G. L. Bach and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논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미국경제학회의 ‘경제교육분과위원회’는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경제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각 학교에 추천하는 교과서를 발표한 보고서를 1963년에 발표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Economics in School”을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63 논문 참고.

18) 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제1호, 1987, 김영용, “‘경제학 소설’의 경제교육적 가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2000년대 초에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의 매년 한 차례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를 갖는 등 경제교육에 본격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¹⁹⁾

본 논문은 경제교육의 문제와 과제를 ‘경제학 입문’ 교육을 중심으로 살펴 보려 한다. 먼저 경제학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고찰한 다음, 경제학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 교육 문제와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II. 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1. 강의와 연구의 트레이드 오프

대학에서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이다. 비록 실증적 통계자료는 없지만, 경제학계 현황을 개관하건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에 더욱 많은 관심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교육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교수들이 ‘교육’ 보다는 ‘연구’에 보다 높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제약을 받는 대학교수들은 연구와 강의에 제한된 시간을 할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구와 강의는 트레이드 어프 관계이다. 그런데 교수가 강의와 연구 부문에 투입하는 시간은 역시 대학당국의 교수업적 평가와 관련된 인센티브 시스템에 달려있다고 본다.

(1) 교수업적 평가제도

비록 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고는 하지만, 교수의 기본 역할은 뭐니 뭐니해도 학생을 가르치는 것, 즉 교육이다. 교수의 역할 가운데 사실 연구도 잘 가르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세계 100대 대학’ 등 대학교 순위를 정할 때,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는 판단 지표이다 보니, 강의중심 대학이건 연구중심 대학이건 모든 대학들이 교수들의 연구업적을 높이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19) 경제학교육위원회가 개최한 경제교육 관련 세미나 심포지엄, 학술회의는 ‘한국경제학교육 이대로 좋은가?’(2000.6), ‘경제학, 이렇게 가르치자’(2000.9), ‘한국경제학 교육의 나아갈 방향’(2001.2), ‘경제학 교육에 있어서의 기업’(2001.9), ‘경제학 교육과 경제정책’(2002.9), ‘새로운 경제교육의 방향 모색’(2004.11),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6.1), ‘청소년 학교 경제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2006.9) 등 이다.

비록 교수의 업적 평가는 강의, 연구, 사회봉사 등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실적을 평가하고는 있지만, 3가지 항목 가운데 연구 실적의 비중이 커 질수록 교수들이 강의보다는 연구에 치중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각 대학에서 승급과 승진 심사에서 교수업적을 평가할 때 연구 실적이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며, 강의업적은 최소한의 책임강의 시간 수를 충족시켰는지 여부만 파악할 뿐, 강의에 대한 평가 정도가 감안되지는 않는다.²⁰⁾ 매스컴에서도 연구 실적이 없거나 부족해서 승급이나 승진심사에서 누락되었다는 뉴스는 자주 등장해도, 강의가 형편이 없어서 승급이나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는 뉴스는 접하기 어렵다.

특히 대학당국이 교수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최근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을 많은 대학에서 주당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25% 감축하거나, 또는 9시간에서 6시간으로 30% 감축하였다. 기존의 교수들이 3과목씩 가르치던 것을 2과목만 가르치게 되면 신입교원수가 거의 50%이상 증원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학의 예산제약으로 단기간에 교수 충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설장 과목수를 줄이거나 시간강사에 대한 의존율이 대폭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더구나 책임강의 시간 수가 줄어들 때, 전임교수들은 학생 수도 많아 강의평가 점수도 얻기 어려운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 보다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대학원 과목이나 학부의 전공과목 강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학원론’과 같은 학부의 입문 과목들은 시간강사의 몫으로 돌아가기가 쉽게 될 것이다. 이는 경제원론 강의의 질을 하락시킬 것으로 우려된다.²¹⁾ 외국 대학에서도 ‘경제학 원론’ 강의를 주로 강의조교(TA)들에게 맡기고 있는 이른바 ‘연구중심 대학’들의 학부 경제교육이 한계가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²²⁾ 최근 교수의 책임강의 시간 축

20)필자가 속한 대학의 경우 강의업적 평가에는 승급심사대상자는 해당직급 재직기간동안 주당 책임강의시수(주당 학부책임강의시수 포함)를 모두 충족했지만 여부만 파악한다. 그렇지만 연구업적에는 주요 비교대학 전임교원의 연구 실적을 기초로 한 연구필수요건과 비교해서 교수별 연구업적을 평가한다.

21)물론 모든 시간강사의 강의품질이 전임교수보다 낮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각박한 강사료가 생계수단이 되는 경우 여러 대학에서 많은 시간을 강의해야 하는 시간강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면 그럴 개연성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22)미국에서 TEU(Test of Economic Understanding)를 가지고 대학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강의를 중시하는 50개 인문대학에서 경제학원론을 수강한 2학년들의 점수는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TEU 점수가 6점 높았다. 그런데 명문('high prestige')대학 2학년생들은 1.6점 높았으며, 강의조교(TA)가 주로 경제원론을 강의하는 40개 연구중심 대학생들은 0.8점이 높았을 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nry H. Villard, "The Evalua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Where We Now Stand," *Journal of Economics*, Fall 1969, p. 60 참고.

소조치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현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서 강의능력이 중시되지 않는 것은 신규채용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대개 각 대학에서는 임용 대상 후보 교수로부터 강의경험이 있는 교과목 이름과 연구실적 리스트를 포함한 이력서를 요구한다. 그리고 채용심사 시에 연구논문 심사위원회 교수들 앞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하도록 요청한다. 그렇지만 강의 경력이 있는 임용 대상 후보 교수의 강의 평가 자료(예컨대 학생들의 강의평가 점수 등)를 요청하는 학교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연구논문 발표능력을 통해 강의 능력을 짐작해 볼 수 있지만, 논문발표와 강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 30분 이내의 연구 논문 발표를 보고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강의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임용후보자의 과거 강의에 대한 평가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하며,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도 의미있는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연구중심대학이든 강의중심대학이든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수임용 기본조건으로 박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SCI 등재논문 편수 등 연구역량을 중심으로 채용심사를 하고 있다. 이는 강의중심대학에서 매우 유용한 현장 실무경험이나 실용지식을 갖춘 인재를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므로 적어도 ‘강의중심대학’의 임용심사에는 연구 능력보다는 교수의 강의 실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교수들이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면 학교로부터 특별 보상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강의평가 점수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 보상하는 사례는 드물다. 비록 대학에 따라서 매년 또는 매학기 ‘Best Teacher’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는 해도 숫자가 제한적이어서 강의를 잘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²³⁾ 그러므로 강의 평가에서 평균수준을 월등하게 상회하는 모든 교수들에게 학교당국이 우수 연구논문에 대한 포상과 유사한 장려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도 지금 우수한 명문 대학에서 교수들의 강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강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종신고용계약을 하지 못하거나 승진을 못하는 사례도 있다. Becker and Watts는 미국 대학에서 강의실력이 연봉조정이나 승진 결정에 약 25% 내지 30%의 비중을 차

23)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도 1년에 한 차례 개교 기념일에 전체 대학교에서 계열별(이공계열, 자연계열, 사회계열, 예체능계열 등)로 1명씩 선정하여 포상한다.

지하고 있으며²⁴⁾, 1995년과 2000년도 미국 경제학과 교수 서베이에 의하면, 2000년도 연구에 투입하는 시간은 1995년에 비해 약 30% 포인트 감소하였고, 대신 강의에 투입하는 시간은 같은 기간에 약 20%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투자의 변동은 경제학과에서 승진이나 연봉조정에 강의평가 비중이 5% 포인트 이상 증가했다는 조사결과와 일치한다.²⁵⁾ 이는 교수로 하여금 강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의 조정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2) 이중 업적평가제도의 도입

학교 당국이 연구에 치중하려는 경제학 교수들로 하여금 강의를 잘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강의의 품질이 나쁘면 당장 승진이나 연봉조정에 불이익을 준다고 위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지만 장려할 방법은 아니다. 그것 보다는 교수들이 강의에 보다 많이 관심을 갖고 강의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학교당국이 교수 업적 평가시에 연구와 강의에 주어졌던 비중을 조정해서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 보다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교수들이 임용 이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업적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연구생산성이 떨어진 교수들은 연구업적을 채우기에 전전공공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 연구실적을 독려하기 보다는 강의기법을 개발해서 강의의 품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 학교 전체에 이익이 될 것이다.

강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이 임용된 후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연구중심교수 또는 강의중심교수로 구분해서 업적을 평가하는 이중(two-track) 업적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연구중심교수에게는 강의부담을 예컨대 현행 1년 주당 책임강의시간을 12시간에서 9시간 또는 6시간으로 대폭 줄여주면서 정평있는 우수한 학술지에 연구논문 게재 의무를 지우고, 강의중심교수에게는 주당 강의책임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18시간 또는 21시간 등으로 대폭 증대시키는 한편 연구논문 실적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물론 강의중심교수들에게도 강의 품질을 높이도록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나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달할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24) William E. Becker and Michael Watts, "Teaching methods in U.S.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p. 269.

25) 상계서, p. 272.

(3) 교과과정

교과과정도 역시 연구와 강의 사이에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으므로 연구 중심 대학의 교과과정과 강의 중심 대학의 교과과정은 분명히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커리큘럼을 비교해 보지는 못했지만, 서울과 수도권 대학들의 교과과정을 일별해 보니, 연구 중심 대학과 강의 중심 대학 사이에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대학 특성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경제학 전공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뜻한다. 그렇지만 연구 중심 대학은 대학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므로 과목의 종류나 내용의 깊이에 있어서도 대학원 학습에 필요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데 보다 큰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강의 중심 대학에서는 졸업 후 기업체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출할 것이므로 기업에서 유용한 지식을 가르치는데 더 치중해야 할 것이다.²⁶⁾ 예를 들면 강의중심 대학에서는 ‘관리경제학’처럼 기업경영에 필요한 경제학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필수교양과목으로 ‘무역의 이론과 실무’, ‘기업정보의 이해’, ‘세계경제의 이해’, ‘중국 경제의 이해’ 등 기업 활동에 보다 유용할 과목들을 폭 넓게 설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임용교수의 최저 요구학위나 연구역량 중심의 채용제도에 신축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제교육 방법

(1) 현실경제 사례 연계 강의

이미 오래 전에 미국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들의 수업방법에 비판론이 제기된바 있다. 대다수 교수들이 아직도 “칠판과 백묵(chalk and talk)”만 가지고 수업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학과의 목표가 교육(teaching)도 포함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경영대학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현실경제의 기업 사례분석(case-study)과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렇지만 경제학과 교수들은 학생들의 일상생활과는 직접 연관 짓기 어려운 가상의 예를 들어 이론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런가 하면 현실경제에서 별 의미도 없는 점탄력성이나 호탄력성의 설명이나 계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²⁷⁾ 비록 우리나라

26)필자가 속한 학교의 경제금융학부 2007년도 취업자 83명 가운데 96%가 제조기업과 금융기업에 취업하였다.

27)Robert E. Lucas,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Promoting economic literacy: Panel discussion, "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Nashville: May 2002, p. 473.

라 일반대학 경제학과 모든 교수들의 교수방법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위와 같은 지적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300단위나 400단위 고학년 전공과목에서는 이론에 치중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지만 100단위 기초과목인 경제학 원론, 입문, 또는 개론과목에서는 현실경제와 이론의 접목이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현실경제 응용사례를 통해 학생들은 배운 이론의 유용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경제원리를 배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 더 많은 이론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학이 어렵기만 하고 매마른(dry) 내용이라는 기존의 편견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경제원론 교과서에 차츰 보다 많은 현실경제사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현실경제와 경제학 입문 수업을 연계시켜 강의하는 교수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질의응답 및 토론식 강의 방식²⁸⁾

우리 신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이 크게 달라져 있다.²⁹⁾ 지금 대학생들은 디지털시대에 태어나 자라 쌍방향(two-way)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디지털 원주민(natives)’ 세대인데 비해 현재 대학교수들은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방식도 일방통행(one-way) 커뮤니케이션에 능한 이른바 성인이 되어 디지털 세계에 이주해온 ‘디지털 이민’ 세대이다.³⁰⁾

비록 교수들에게는 일방통행식 강의방법이 편리하고 편안할 수도 있겠지

28)이 부분은 손정식, “디지털 이주민 1.5세대를 위한 강의,” 교수신문(2007. 4.7)을 발췌한 것이다.

29)미국의 NCB 대학교 프렌스키(Marc Prensky) 교수는 20세기가 끝나기 10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으로 구분한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갓 난 아기 때부터 디지털 장난감, 비디오게임, 디지털음향기기, 디지털 휴대전화, 컴퓨터 등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비디오게임, 컴퓨터게임, 디지털카메라, 이메일, 인터넷 서핑, 여러 기능의 휴대전화, 메신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등이 생활화 된 세대이다. 이들은 디지털 언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자란 ‘원주민(natives)’들이어서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정보처리방식도 그 이전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며, 글을 읽고 그림을 보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그림을 먼저 보고 글을 읽는다. 이들은 정보를 순차적으로 받아드리기 보다는 하이퍼텍스트처럼 무작위로 접근하고 수용한다. 이들은 즉석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칭찬 받기를 원한다.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Marc Prensky,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NCB University Press, Vol.9 No. 5, October 2001 참고.

30)교수들은 디지털세계가 좋아서(또는 불가피해서) 디지털 언어(신기술)들을 익힌 아날로그 세대이다 보니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아무래도 아날로그 역량을 완전히 버리기는 어렵다. 이메일을 복사해서 읽는다는가, 이메일을 열어보았느냐고 전화한다는가, 글 쓸 때도 종이에 먼저 쓴 다음에 워드프로 세서로 옮기고, 원고를 컴퓨터 모니터 스크린에서 직접 수정하기보다는 인쇄해서 작업하는 것이 편안하다.

만 디지털 원주민인 학생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강의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한 대학생들은 강의 시간 내내 독백하듯 교수가 혼자서 열강하고, 학생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경청하고 받아 적기만 했던 전통적 강의방식보다는 강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interactive) 강의를 선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이다. 더욱이 ‘경제원론’ 수업이 흥미도 재미도 없다는 평을 학생들로부터 받고 있는데, 바로 흥미와 재미를 더하는 방법의 하나는 강의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질의응답과 토론식 강의방식은 강의실 환경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체로 경제원론과 같은 기초과목은 한 반에 수강생 숫자가 100명, 150명 내외에 이르므로 이러한 대단위 강의실에서 효과적으로 질의응답이나 토론식 수업을 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사이버강의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은 이미 교수 개인별로 담당하는 모든 과목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이메일도 개별학생과 개별적으로 주고받고, 필요하면 전체 수강생에게 일괄적으로 동보 메일도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있다. 필자의 과목별 홈페이지는 교수게시판, 질의응답방, 토론방, 자료실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러한 강의실 환경을 학교가 마련한 것은 앞으로 디지털 원주민인 대학생들을 교육하는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도 모두들 강의에 디지털 언어를 구사하기를 대학당국이 기대하고 있음을 뜻한다.

아울러 24시간 생활주기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과목별 홈페이지(사이버 강의실)의 교수게시판에 강의내용 관련 토론주제를 올려놓고 학생들로 하여금 24시간 언제라도 들러서 토론방에 자기 의견을 올리고 다른 학우의 글에 반론이나 지지의견을 올리도록 하면 효과적 학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교재의 한 장 강의가 끝나면 교재의 책 뒤에 있는 연습문제를 혼자서 풀어보는 아날로그 방식과는 크게 다른 방식이다.

물론 이 모두가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에게는 힘든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디지털 이민 세대 교수들이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할 유인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교수들이 직접 제작할 능력을 갖추도록 대학당국이 파워포인트 작성 기법에 대한 연수기회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수준별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로운

수업방법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수업적 평가에 가점이 주어지는 등 동기부여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예컨대 토론식 수업방법은 시도하는 교수에게도 엑스트라 부담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토론에 대한 거부감으로 학생들조차도 특별히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강의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당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하는 교수들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비전통적 수업방식에는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이론이 차지하는 부문이 많고 현실경제 응용사례를 찾기도 어렵고 직접 적용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많은 고단위 과목에서는 토론식, 프로젝트 방식의 수업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과목에서도 한 학기 또는 한 시간 내내 질의응답과 토론방식으로 이끌기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비전통적 수업방식’은 전통적 ‘칠판과 백묵’에 의한 수업 방식을 완전히 대체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질의응답과 토론방식을 가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비전통적 수업방식에 얼마나 큰 비중을 줄 것인가는 개별 교수마다, 그리고 과목과 수강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경제학’ 입문 과목에서는 교육 방법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무조건 경계하거나 무시할 것은 아니다. 사실 경제문제는 대부분 논쟁적인 것이 많고 찬반양론이 가능한 것이어서 수강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타 학문에 비해서 오히려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십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3) 개인의 경험과 연계하는 강의

학생들이 경제학 이론을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강의실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들을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지적 유희정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매일의 경제활동 내역을 일기로 써보게 하는 과제를 제시한 사례는 매우 흥미롭다.³¹⁾ 즉 1주일간 자기가 실제 경험한 사례를 하루 한 가지씩 한 문단 정도의 일기를 쓰게 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를 강의실에서 배운 개념이나 이론과 연관 지어 쓰게 한다.³²⁾

31)Stephanie M Brewer, James J Jozefowicz, “Making Economic Principles Personal: Student Journals and Reflection Paper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2006, p. 202.

32)상게서. 학생들의 일기 사례를 하나 인용해 보면, “(November 19, 1999) Today I had to go to

필자도 과거에 졸업생들로부터 대학 재학할 때 학습한 경제학 수업은 졸업 후에 현실경제를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을 들었던 경험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자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매일 매일 학생들이 접하는 일상생활이나 FTA처럼 현실경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에 적용시켜 분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도를 한다. 그 결과 수강생들은 배운 이론이 얼마나 현실경제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또 사례분석 과정에서 이론을 배우는 의의와 흥미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한다.

특히 학생들이 ‘경제원론’ 등 입문 시간에 배운 이론이나 개념을 자기 자신과 직접 연계시키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학습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거시경제 개념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학생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즉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필자는 GDP와 관련된 다양한 개념(GNI, 일인당소득, 경제성장률 등등)을 강의한 다음 학생들에게 GDP 관련 다양한 개념들이 자신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가를 생각해 보도록 과제를 부여한다.³³⁾ 외부효과를 강의하면서 외부비용(external cost), 외부혜택(external benefit)의 개념을 설명하고, 교내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외부비용이나 외부혜택 사례를 찾아보라는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기들이 배우는 경제개념들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경제 개념의 정확한 이해뿐만 아니라 배우는 재미를 얻는다.³⁴⁾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강의함에 따른(예: 현실경제 사례분석) 또 하나의 문제는 교수가 강의실에서 커버하는 양이 적어지는 것이다.³⁵⁾ 그렇지만 어떤

the store for a package of few socks. I was expecting them to cost around \$8.00, but they only cost \$5.08. This is a consumer surplus, because I was willing to pay \$8.00, but I only had to pay \$5.08.”

33) 학생들이 제시한 답에는 “200년도 우리나라 명목GNI가 902조원이라 하니,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증가하면 대체로 우리나라 명목GNI가 9조 2천억원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고, 그것은 1,500만원 연봉을 주는 일자리가 60만개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내가 졸업하는 해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내가 취직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은 나의 미래와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34) 이러한 과제는 과목별로 만들어져있는 사이버강의실에 있는 과목별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한다. 예컨대 일정 기간 동안 캠퍼스에서 경험한 외부비용, 외부혜택 사례를 찾아서 왜 그것이 외부비용인지 또는 외부혜택인지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게 한다. 외부비용이나 외부혜택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사례를 올리는 경우 다른 학생들이 댓글을 달아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5) William E. Becker and Michael Watts, eds.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Cheltenham, U. K.: Edward Elgar, 1999.

식으로 경제학 입문 강의를 하든 커버하고 싶은 모든 내용을 다 커버할 수는 없으므로, 커버하지 못하는 문제는 항상 발생한다. 특히 경제원론과 같은 입문 과목 강의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느냐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입문 과목의 강의에는 커버하는 범위에 중점이 주어지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III.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1.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교육의 의의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는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1)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2)경제학을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전공으로 선택한 학생들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얻기 위해 수강하는 학생, (3) 비전공생으로 재학중 ‘경제학 원론’ 한 과목만을 교양과목으로 학습하려는 학생 등이 있다. 그런데 경제학과에서는 대체로 위에서 첫째와 둘째 목적의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대학에서 경제교육을 학습하는 대상에는 경제학 전공생들 이외에 교양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을 학습하고자 하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학 전공생들 숫자보다 수십 배나 많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한 결과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비록 경제학과 교수들이 대다수 학부과정에서 전공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이 경제의 기본 개념과 기초적인 경제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내용과 방법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는 되돌아볼 여지가 있다. 필자도 행정을 담당했을 때, 타 단과대학에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교양필수로 개설할 것을 요청하면 거절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타 단과대학 학장이나 학과(부)장들에게 ‘경제학 입문’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강좌개설을 설득하는 일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리로 비전공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찾아오면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수용할 뿐, 비전공생들을 위해 별도의 반을 만들어 주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경제학과의 ‘경제학 입문’ 교육이 대체로 전공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왔다. 그러다보니 경제학과에서 개설되는 ‘경제학 입문’ 과목 내용은 대부분 상급학년의 중급미시경제학이나 중급거시경제학을 학습하는데 필요

한 기초지식을 전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런데 비전공 학생들을 대부분 학부나 대학원에 진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의향이 없는 학생들이므로 경제학과에 설강한 경제학 입문 과목은 마지막(terminal) 교양과목으로 수강하려는 비전공생들의 니드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비전공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의 성패는 이들에게 경제나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지적 호기심을 갖게 했는지, 경제학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키우는데 성공했는지 여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원론’ 수업에서 비전공생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왜 최근 젊은이들의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는지,” “왜 평준화 이후 조기유학생들이 늘어났는지,”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된 이후 비정규직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들이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서인지,” “왜 뉴질랜드에서는 농민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한 이후 일정 기간 이후에 농업 경쟁력이 급격하게 상승했는지³⁶⁾ 등등, 다행이도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원론’ 시간에도 다룰 수 있는 흥미진진한 주제는 너무 많다. 우리는 비전공학생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얻기 위한 목적만으로 ‘경제학 원론’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전공생들을 위한 입문 과목에서는 교재의 너무 많은 양을 커버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미 20 여 년 전에 경제교육에 관심을 가졌던 성균관대학교 이재웅 교수도 “잡다한 경제용어, 개념, 원리 등을 무차별하게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논리적 이해보다는 주입식 용어 암기 등에 그치며 경제적인 사고 방식을 학생에게 훈련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³⁷⁾

미국에서도 경제학 입문 강의에서 너무 많은 양이 커버된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또한 중요한 기본개념(key concepts)에 보다 많은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는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물론 기본 개념과 이론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르칠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교수들이 판단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³⁸⁾

36)김정호, “뉴질랜드 농민이 전하는 말,” 한국경제신문 (2008.6.9)

37)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1987, p. 19.

38)Carol Johnston, Ian McDonald and Ross Williams, “The scholarship of teaching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p. 195.

2.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학 입문 설강과 수강 현황

서울 주요 대학의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원론’을 비롯한 입문 과목의 개설 상황을 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원론’ 과목을 개설하고 오픈 수강제를 통해 비전공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할 경우 수강생의 대부분은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고 한 반에 겨우 몇 명, 십 여 명의 비전공생들이 수강 한다. 사실 대부분의 경제학 입문 과목이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강되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생이나 비전공생 모두 비슷한 경제학 기초지식을 가진 집단이므로 실제로 비전공생들이 전공생에 비해 성적경쟁에서 불리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전공생들의 수강이 저조한 까닭은 경제학 입문 과목들이 대부분 상대평가대상 과목이므로 비전공생은 전공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형은 법학대학이나 경영대학 등 특정 단과대학에 필수과목으로 경제학 입문 과목이 설강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때 해당 대학 학생들은 자기와 동질적인 집단과 경쟁한다. 또한 비전공 학생들도 경제학 전공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기 때문에 학점 경쟁에 따른 심리적 압박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

셋째 유형은 대학 전체 교양과목의 하나로 ‘경제학 원론’과 같은 입문과목을 설강하고, 비전공생들에게만 오픈하는 방식이다. 비전공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형일 것이다. 학점경쟁에 따른 심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기 때문이다.

넷째 유형은 다른 전공과 경제를 연계한 과목을 설강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대학교의 경우 인류학과에는 ‘문화와 경제’, 지리학과에는 ‘경제지리학’ 등의 과목이 설강되어 있다. 이 경우 학제간 강의를 담당할 교수를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많은 비전공생들로 하여금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셋째 유형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아래 <표 1>에서 필자가 속한 대학의 2007년도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의 수강현황을 보면, 대학 전체의 교양과목의 하나로 비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설강된 경제학과 입문 과목은 경제학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설강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과목에 비해 타과(비전공생)생들의 수강 비중이 크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경제학 입문 교양과목 수강현황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현실경제의 이해(1/2학기)	환경문제의 경제적 이해	시장경제의 이해
이공	37	33	88/108	31	55
경영	40	37	44/55	23	45
인문사회	47	22	73/58	19	16
예체능	2	1	10/0	10	2
경제 ^{*)}	8	12	9/16	28	15
합계	134	105	224/237	111	133

*)원칙적으로 경제학과 재학생들은 ‘미시경제원론,’ ‘거시경제원론,’ ‘현실경제의 이해’와 같은 타 단과대학이나 대학교양 과목으로 설강한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환경문제의 경제적 이해’나 ‘시장경제의 이해’ 과목은 경제학과 재학생들도 수강할 수 있다.

경영대학과 법학대학 설강한 ‘경제원론’ 과목은 해당 대학 학생들이 몇 개 기초 필수 과목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표 2>는 경영대학과 법학대학에 설강한 경제원론 과목의 수강현황이다. 이 경우에는 설강대학 학생들을 제외한 여타 비전공학생들의 수강 숫자는 매우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2> 타 단과대학 개설 ‘경제원론’ 수강현황

	경영대	법대
경영	321	11
법	0	282
인문사회	22	39
이공	13	0
합계	356	332

위의 통계 결과를 모든 대학의 사례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비전공생들에게 경제학 입문 과목의 수강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교양과목으로 ‘경제원론’을 여러 개 반 설강할 때, 고려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 ‘경제원론(인문계)’ ‘경제원론(자연계)’ ‘경제학개론(인문계)’ ‘경제학개론(자연계)’ 등 이과와 문과 전공으로 다시 구분해서 설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이는 비슷한 학문적 취향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수강한다는 면에서 교수가 강의하기에도 훨씬 더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실경제 사례를 예로 들 경우 인문계와 자연계 각 반에 해당 계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다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례분석 효과를 제고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들도 동질적인 집단이 동일한 반에서 학습함으로써 학점경쟁에 따른 심리적 부담도 적을 것이다.

보다 눈에 띄이는 것은 <표 3>에서 보듯 외부기관의 후원 하에 설강된 경제관련 과목에 다양한 비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유기업원에서는 매 학기 10여개 대학에 ‘시장경제의 이해’ 과목을 설강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 100명에서 150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수강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조망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갖는다. 실제로 이러한 과목을 진행해본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과목들이 인기가 있는 것은 매 주 1회씩 외부교수나 CEO들이 출강하여 다양한 연사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기에 출강하는 교수들은 타 대학교에서 이미 강의능력이 인증된바 있는 교수나 CEO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흥미있고 유익하다는 정평이 캠퍼스에 나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강사의 강의 실력이 비전공학생들로 하여금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할 동기를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경제학 입문 과목에 보다 많은 비전공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학 입문 과목의 설강뿐만 아니라, 명강사를 초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3> 외부지원으로 설강한 경제학 입문 과목 수강현황

	이공	경영	인문사회	예체능	경제	합계
시장경제의 이해	55	45	16	2	15	133

※ 자유기업원 후원으로 설강한 과목

3. 비전공생도 관심가질 경제학과 전공과목

경제학과 개설과목 가운데는 비록 경제학 전공생들을 위해 설강된 고단위 (300단위 400단위) 과목이지만, 비전공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과목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경제학과에서 대부분 설강하고 있는 환율과 선물거래를 강의하는 국제금융, 한국경제의 이해, 세계경제의 이해 등의 과목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기업에 진출할 전공생뿐만 아니라 비전공생들에게도 유용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데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 경제학과 4학년에 설강한 과목이기는 하지만, 여타 비전공생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과목인 ‘세계경제의 이해’ 등은 총45명 수강생 가운데 경제학과 전공생이 39명으로 87%를 차지하고, 비전공생들은 6명으로 13%에 불과할 뿐이다. 아울러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이는 ‘관리경제학’도 경제학전공생 73명 비전공생 5명으로 경제학 전공생들만 수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학과 전공과목에 비전공생들의 수강이 매우 저조한 까닭은 아무래도 해당 교과목의 내용이나 강의방식에 대해 비전공생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해당 교과목의 설명을 보면 불과 몇 줄로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공생들이 수강해서 어떤 도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학과에서 비전공생들이 선호할만한 교과목을 소개할 때 비전공생들도 아울러 염두에 두고 교과목 소개를 작성하고 또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교과목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비전공생들의 경제학 관련 과목의 수강이 부진한 것은 미국의 경우와 대비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생들의 약 40%가 학부과정에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한다고 한다.³⁹⁾ 필자가 속해있는 대학에서 봄학기에 수강신청을 한 비경제학전공생 숫자는 1학년부터 4학년생까지 모두 합쳐 15,000 여명이다. 그런데 봄학기에 경제관련 입문 과목을 수강한 비전공 학생은 887명으로 약 5%이다. 만약 4년 동안 그러한 숫자가 입문 과목을 수강신청할 것으로 보면 887명의 4배 정도 비전공 학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수강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약 3천5백 명이 된다. 그러므로 많아야 약 25% 학생들이 경제학 입문 과목을 재학 중에 수강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의 경우 4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숫자이다.

39) Robert E Lucas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002, p. 473.

결론적으로 외국대학의 경제학과 커리큘럼을 보면 “Principles of Economics for Non-majors” “International Economics for Non-majors” 등의 과목명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경제학 원론’ 등 입문 과목을 별도로 설강할 필요가 있다. 또는 비록 동일한 ‘경제학 원론’ 과목을 설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평가의 공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반(section)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경제학원론의 기본 이론만을 이용해서 현실경제 사례분석 위주로 강의하는 “현실경제의 이해”는 경제학 전공생들의 수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비전공 학생들만 수강하게 하고 있는데, 앞의 <표 1>에서 보았듯 매 학기 150명의 정원을 100% 채우고 있다. 특히 비전공생들을 위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경제학의 기초 원리와 이를 현실경제에 접목해서 현실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하니 학생들의 흥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 경제학 원리를 배우는 데 재미를 느낀 학생들이 경제학과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고 싶으면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것을 보면, 입문 과목 강의에서 흥미를 느끼게 하면 더 많은 경제학과 전공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학과 교수배정 기준

경제학과 교수들이 비전공생을 위한 경제교육에 열을 올리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대학당국의 각 학과별 교수채용 할당 배정 기준 때문일 수도 있다. 현재 대학당국이 과별 교수채용 정원을 배정할 때 결정적 요소는 학과별 학생 정원이다. 그래서 대체로 정원이 많은 학과에는 보다 많은 신입교수 채용인원을 할당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과 학생정원은 많지 않은 편이어서 경제학과 교수 숫자도 제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학 입문 강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학과 교수들의 강의부담은 늘어나게 되니 이를 환영할 교수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대학당국이 신입교수 채용 할당 할 때, 개별 학과별 학생정원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비전공생들이 예컨대 경제학과 과목을 수강하는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많은 수의 비전공생들에게 서비스해야 할 과목이 많은 경제학과의 신입교수 채용할당에는 이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공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학 등 전체 대학의 수학교육을 담당하는 수학과 교수 정원을 수학과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안 되는 것과 같다.

IV. 결론

대학의 경제학 교육과 관련해서 경제학 입문 과목을 중심으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첫째, 연구중심대학을 제외한 강의중심대학에서 조차 강의보다는 연구는 더 큰 비중이 주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업적평가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학 입문 과목에서는 이론 강의에 치우친 전통적인 강의방식을 탈피하고, 현실경제와 연계한 강의방식이 효과적일 것임을 제안 한다. 아울러 디지털 세대인 우리 학생들에게 ‘칠판과 백묵’에 의한 전통적 강의방식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교수세대와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다른 이른바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질의응답식 및 토론식 강의 방법이 유효할 것이다.

셋째, 각 대학의 경제학과에서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이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보다 많은 비전공생들이 경제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별도의 경제학 입문 반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과 교수들은 비전공생들을 위한 입문과목 강의 목표는 경제문맹을 방지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많은 NGO를 비롯해서 경제학 비전공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경제정책의 입안, 시행, 추진, 비판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유권자로서 비전공자들의 경제에 대한 시각은 대선이나 총선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전공생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제대로 학습시하지 않아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경제학 교수들은 경제정책이 잘못 입안되었다거나 유권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불평할 자격을 잃게 된다.

본 연구의 내용은 시간제약과 예산제약 때문에 주로 필자의 관찰과 경험, 그리고 주관적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필자의 여러 주장들은 실증적 근거를 찾는 조사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후학들이 이를 차후 연구과제로 삼아주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필자의 주장들은 문제 제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다.

< 참고문헌 >

- 김영용, “‘경제학 소설’의 경제교육적 가치에 관한 비판적 연구,”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 이재웅, “한국경제와 학교경제교육의 과제,” 경제학연구, 제36집 제1호, 1987.
- Bach, G. L. and Phillip Saunders, "Economic Education: Aspirations and Achievements,"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65.
-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eds. *Teaching Economics to Undergraduates: Alternatives to Chalk and Talk*. Cheltenham, U. K.: Edward Elgar, 1999.
- Becker, William E. and Michael Watts, "Teaching methods in U.S. undergraduate economics course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 Brewer, Stephanie M. and James J Jozefowicz, "Making Economic Principles Personal: Student Journals and Reflection Paper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pring 2006.
- Johnston, Carol, Ian McDonald and Ross Williams, "The scholarship of teaching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Summer 2001.
- Lucas, Robert E. Jr., Alan B. Krueger, Rebecca M. Blank, "Promoting economic literacy: Panel discus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002.
- Prensky, Marc (2001) "Digital Natives, Digital Immigrants," *On the Horizon*, **NCB University** Press, October 2001.
- Villard, Henry H., "The Evaluation of Teaching Effectiveness: Where We Now Stand," *Journal of Economics*, Fall 1969.

< 부록 >

경제학 교양과목에 대한 비전공생 설문조사

본 설문조사는 필자가 진행하는 ‘매경-한양금융특강’ 강의를 수강하는 150여명의 학생과 캠퍼스에서 무작위로 만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총응답자는 235명이다. 1만5천명이나 되는 대학생 가운데 소수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특히 특정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조사했다는 점 때문에 이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부록>에라도 첨가하는 이유는 비록 통계숫자를 매우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하겠지만,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교육 관련 문제 제기나 시사점을 얻을 단초를 찾는 데 조금은 유용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장래 경제학 관련 과목을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없다’는 학생이 42.1%였고, 1과목 수강 의향을 밝힌 학생은 30.6%, 2과목 이상을 수강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도 27.3%이었다. 그래서 수강의향을 밝힌 학생 57.9%이 의향이 ‘없다’는 학생보다 약 15% 포인트 많았다. 이는 상당히 많은 비전공생들의 경제관련 과목에 대한 니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련 과목 수강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수강동기를 문의한 결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29.0%,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가 26.1%, ‘부전공, 다중전공, 복수전공 과목으로 수강한다’는 학생이 13.0%,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5.1% 순이었다. 이를 통해 비전공생들이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주요 동기는 취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 함양과 교양을 넓히기 위해서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비전공생들을 위해 설강하는 경제관련 과목이 제공해야 할 지식은 교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한 이후 소감에 대한 질문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44.9%, 교양을 넓혔다가 28.3%,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가 18.8%였다.

아울러 경제관련 과목 수강에 대한 만족도를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87.8%가 ‘만족’ (대단히 만족 17.4%, 대체로 만족 70.4%)이었고, ‘불만족’이 12.3% (대체로 불만족 9.4%, 아주불만족 2.9%)였다. 만족하는 학생이 불만족한 학

생보다 거의 7배 많은 것은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매경-한양금융특강’ 수강자들인데, 이들이 ‘매경-한양금융특강’ 강의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수강에 만족한 이유는 ‘교양과 호기심을 높였기’ 때문이 34.4%로 가장 높고, ‘흥미로웠기’ 때문 27.1%,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 26.2%였다. 이는 비전공생들을 위한 경제관련 과목 내용은 교양과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과목, 그리고 흥미있는 강의방법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강의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서가 29.9%, 전공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인가 22.7%, ‘흥미로울 것 같지 않아서’가 13.3% 등 이었다. 이는 비전공생들에게 경제관련 과목을 수강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과목 내용을 쉽게 강의할 필요와, 내용도 장래 생활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꾸며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경제관련 과목에서 비전공생들만을 위한 별도의 반을 개설할 경우 수강의향을 묻는 질문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9.2%, 없다는 응답이 20.0%였다. 그러므로 비전공생들을 위한 별도의 반을 개설하는 것이 유효할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관련 과목 가운데 설강의 희망하는 과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희망하는 과목은 ‘세계경제의 이해’, ‘한국경제의 이해’, ‘중국경제의 이해’ 등 지역경제의 이해를 위한 과목이 20.0%로 가장 많았고, ‘경제원론’ 30.6%, 개인금융 36.2%, 국제금융 6.4% 이었다. 이를 통해 비전공생들만을 위해 개설해야 할 과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사결과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희망과목으로 ‘개인금융(personal finance)’을 지명한 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매경-한양금융특강’이라는 강좌를 수강해 본 경험을 통해 비전공생들에게 ‘개인금융’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현재 경제학과에서 ‘개인금융’을 한 학기 과목으로 설강하고 있는 학교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속해있는 학교에서 ‘매경-한양금융특강’ 또는 ‘시장경제의 이해’와 같은 옴니버스형 강의에서 개인금융 관련 몇 개의 주제가 몇 시간에 걸쳐 다뤄지고 있는 형태가 고작이지만, 몇 시간의 특강 형태라도 비전공생들에게 ‘개인금융’을 강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개인금융’ 과목의 개설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금융문맹’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 신용불량자 400만 가운데 거의 절반이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된 까닭이 비록 카드사의 카드 남발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들이 개인금융 가운데 ‘신용관리’와 ‘부채관리’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결과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금융문맹(financial illiteracy)’을 퇴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은 것을 보면, 우리도 이러한 니드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물론 경제학과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화폐금융’ 과목에서 금융시장, 금융상품, 금융방식, 이자율, 신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동시에 통화이론과 통화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과목 내용이 비전공생들이 원하거나 기대하는 내용과는 크게 다르다.

지정토론

곽재원(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소장)

지정토론

윤석천(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교수)